

“지역 특성 맞는 기회 찾고 생활 안정 위해 고향에 살아요”

광주·전남 청년 '엑소더스'

〈3〉 광주에 뿌리 내린 청년들

무작정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도 있지만, 고향인 광주·전남에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도 많다.

특히 지역 내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중에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광주일보 2024년 12월 2일자 1·3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나주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증가... 교통 편리하고 생활비 절약 '장점' 지역만의 콘텐츠 발굴하고 청년들 취·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해야

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지역 인재 채용 인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전체 채용 인원 439명 중 지역 인재 119명(27.1%)을 채용했다. 2022년 전체 채용 인원 232명 중 71명(30.6%), 2023년 70명 중 24명(34.3%)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계속해서 늘었다.

한전KPSO 2021년 전체 채용 266명 중 80명(30.1%), 2022년 144명 중 45명(31.3%), 2023년 162명 중 66명(40.7%) 등 지역 인재 채용을 늘려왔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인원 감축이 이뤄지면서 전체 채용 인원이 줄었음에도 지역 청년 대상 채용은 늘어났다는 의미다.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성, 편리한 생활 여건, 지역의 특색 있는 기회 등도 지역에 남는 이유로 꼽았다. 광주지역 한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오수아(여·22)씨는 "수도권으로 취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값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보다 고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광주가 수도권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체력측정사로 근무하는 김소희(여·

25)씨는 "수도권보다 교통 혼잡도가 낮아 출퇴근이 편리하고 분가에 살면서 관리비나 식비 등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남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지역 내 다양한 기회와 생활의 안정성을 정착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수도권으로 향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지역 내 취업 등 환경이 달라진다면 머물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은 앞으로 지역이 다양한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해 '지역 청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주용(25)씨는 "수도권의 세력이 점점 세지는 상황인 만큼 지역을 살리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인 나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이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권(25)씨도 "광주가 청년들이 숨 쉬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원들이 청년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광주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은 "지역 청년들은 지역 내 청년 창업과 관련한 자금 지원, 지역 내 공공기관 채용 등을 몸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타를 결심하게 된다"며 "지역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층이 취·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것을 유입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집토끼 잡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예산안 10일까지 여야 합의 해달라” 우원식 의장 국회 본회의 상정 안 해

정치권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내린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 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우 의장의 본회의 상정 보류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의 중·중요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이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수석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 시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실명어든, 설득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 보류로 내린 예산안 처리는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험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수정안 제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 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전면 철회 및 사과가 없다면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고 권력기관 특별비 삭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무안국제공항 첫 데일리(Daily) 국제 정기선 취항식'에서 진에서 객실승무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제선 정기선 개항 17년 만에 처음... 무안에서 편안하게 출발하세요

진에어, 무안공항 취항식 개최 오사카 등 9개국 18개 노선 운항

무안에서 일본 나리타·오사카, 대만 타이베이로 겨울 여행을 갈 수 있는 정기선이 생겼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이날 무안공항을 출발, 일본 나리타·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등을 운항하는 취항식을 개최했다. 진에어가 매일 국제선을 운항하

는 건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오사카는 매일 오전 8시 25분 출발 항공편으로 갈 수 있다. 나리타는 매일 오후 5시 무안공항에서 출발한다. 나리타는 세계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대부분의 노선이 취항하는 일본 중추공항. 미주, 유럽은 물론 남미 등 다양한 국제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핵심 노선이다.

대만 타이베이는 매일 밤 11시 30분 출발, 알찬 여행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

다.

일본 나가사키(화·목·토), 태국 방콕(화·목·토·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화·금)도 오는 8일부터 제주항공을 통해 무안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 겨울, 무안국제공항에서 갈 수 있는 노선은 9개국 18개 노선에 이른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많은 외국 관광객과 기업이 유입돼 서남권이 장래 활력을 찾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년고용정책
청년:up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광주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프로그램
참여인원

5,951명

프로그램
운영시간

13,793시간

청년지원
정책연계

233명

전체 참여자
평균 만족도

4.7

2024년, 청년들과 함께 한 성과만큼
내일을 위한 꿈을 키우고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더 빛날 내일의 주인공, 스테이션 동명에서 START!

참여대상 15~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혜택 모든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기념품 증정

동명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운영시간 월~금 10:00~21:00,
토 10:00~18:00(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 2층

상무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10:00~13:00(프로그램별 상이)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동양빌딩 9층

11 실리상담 및
헬링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및
필요지원 사업 연계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